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7월 15일 (제95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마음을 사라

최고의 셀러리맨들은 물건을 많이 파는 자들일까? 맞다. 자기에게 할당된 물건을 남들보다 많이 파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물건만 팔았을까? 아니다. 그들은 구매자들의 마음을 먼저 산 자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자(吳子)는 위나라 무후를 섬기던 장수였다. 그는 자신의 병사를 친자식처럼 대하고 전쟁터에서는 언제나 졸병들과 함께 생활하여 병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어느 날 병졸 한 사람이 종기가 나서 고생하자 오자는 자신의 입으로 병졸의 피고름을 빨아 치료해주었다. 고향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병졸의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통곡했다. 이에 이웃사람들이 “아니, 졸병인 자식의 피고름을 그 대단하신 장군께서 빨아주었다면 감지덕지해야지 도대체 왜 우는 거요?”라고 하자 그 어머니는 대답했다. “내 남편이 싸움터에 나갔을 때도 아들처럼 종기가 났었는데 그때도 장군이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셨지요. 이 양반이 장군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남들은 다 도망갈 때도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내 자식 놈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그놈도 은혜를 갚는다고 어찌 나을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사람이 마음을 사면 내 사람이 된다. 나는 해외집회에 가면 작은 선물을 꼭 챙긴다. 대개 남대문에서 산 벡타이나 지갑 등이다. 그런데 집회 관련자들에게 벡타이를 일일이 매어주며 ‘우리 죽는 날까지 예수를 위해 같이 목을 매자.’라고 하고, 지갑에 10달러짜리를 넣어주며 ‘죽는 날까지 이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말지어다.’라고 기도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발로 차면 안 되듯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산성에 문빔장을 잠가 놓는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 그것은 감동시키는 것이다.

“방송국에서는 하루 종일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방송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 설명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비유이다.

맞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마28:20)은 거짓일 수 없다. 그분은 범사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고, 실제로 수많은 사인들을 보내신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다 당하는 수가 부지기수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

각이라”(렘29:11).

매일 묵상하는 성경말씀을 통해서도, 음성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천사를 들어서도, 사람을 들어서도, 자연의 현상이나 세상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무관히 여기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인간의 질병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술한 육체의 사인들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치명적 문제가 드러나기까지는 셀 수 없이 많은 신호들이 나타난다. 육체의 주인에게 조심하라고,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건만 5천만이 의사라는 우스갯소리처럼, ‘내 몸은 내가 제

팔을 붙어대도 귀에 들리지 않다가 홀연히 찾아오는 재앙의 탓에 걸리고 만다. 그래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이 부족이라고 외치는 것이다.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신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기니 어둠만 자리 잡아 그 인생이 되는 꼬라지가 없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만약 그러고도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예민한 영적 상태로 이끌어준다. 지극히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깨닫게 한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살고 계신지 알 수 있다. 목사님은 날마다 접하게 되는 모든 장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투사하신다. 사람을 만나건, 어떤

기도로 영적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 부족이다

숨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멍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거나 교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

일 잘 알아’ 하며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며 병을 키우다가 졸지에 당하고 만다.

이것이 어디 육체의 질병뿐이겠는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목사님은 몇 해 전 산상집회 중에 매우 의미심장한 설교를 하셨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문제가 아니다.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죄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만 모르는 죄이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몰마시듯 하다가 악한 귀신의 밥이 되어 그 삶이 폐쇄해진다. 기도가 끊어지고 그의 영적 삶이 녹슬어버리면 영적 무감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단에서 목사들이 무수히 나

일을 경험하건, 뉴스를 접하건, 매사 하나님의 눈으로 검색하고 분석하고 깨달으려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목회 34년의 노하우와 목사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미한 계시를 캐치하고 깨달으려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마치 뱀이 온 몸으로 정보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영혼의 온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 쫓긋 세우는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지혜 중의 지혜다.

한은택 목사
henry8828@naver.com

하계산상집회

일시: 7월 23(월)~8월 2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호텔예약: 7월 17일(화-첫째 주), 18일(수-둘째 주) 오전 10시 정각

홈페이지 예약(www.jcc.tv)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2:1~4)

방언은 비밀을 아는 만능 열쇠이다

목회 34년, 저는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장담컨대 기도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와 예수중심교단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하루 4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집회가 있을 때는 하루 7시간가량 기도합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은 방언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를 왜 하냐고 하고, 방언기도는 가짜니 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방언도 그치고”라는 말씀을 붙들며 방언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전14:39)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은사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역시 성령을 받았다는 외적 증표요, 성령강림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갑자기 방언에 큰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가득한 것 같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길기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 모인 자들이 다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행10:46).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무기 없이 승리할 수 없고 연장 없이 일할 수 없다

방언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이며, 악한 것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준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대화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우리의 기도를 엿듣고 전파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를 할 때 바사국 군, 곧 악의 세력들이 기도의 응답을 막았다고 했습니다(단10:13).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나 방언기

도는 이 악한 것들도 해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암호입니다. 마치 군통신병들이 모스 부호로 ‘또또 또도또’ 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남북 간에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는데, 방언은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8:26~27).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요14:26). 보혜사(保惠師)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주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탄원자가 되시기에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할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큰 고난이나 환난에 처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힐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불안이 엄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늦게 안 사실이지만, 큰 아들 녀석이 사당동 지하철역에서 내리다가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발이 빠져 끼었답니다. 지하철이 그대로 출발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번쩍 들어 올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기도를 늘,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몸이 피곤할 때나 심적으로 괴로울 때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쾌함이 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곧 비

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사28:11~12). 물을 끓이면 그 안에 있던 유해성분이 다 끓어올라 넘쳐 나가듯,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하면 내 안의 나쁜 것들이 다 넘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 내 몸이 상쾌해집니다. 현대인들은 마음 속에 많은 스트레스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상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보다 방언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4:18). 성경에 쉬지 말라고 한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임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14:26). 초대교회에는 예배 때에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아서 증거했으며, 방언기도와 방언통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문화적인 교회가 대세입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좋는데 방언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한 것들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교회의 부흥은 1세기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의 은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니 방언은 하늘나라의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하늘의 시민권’인 셈입니다(빌3:20). 이래도 방언을 금하고, 방언을 자제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표적이 있어야 하는데, 곧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한다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엡6:18)은 방언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만사가 형통하며, 고통과 병과 가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고전12:10),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또한 방언기도는 바다에서는 어뢰탐지기요, 하늘에서는 레이더관측기요, 땅에서는 지질탐사기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14:14~15).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신앙의 이상(理想)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乖離)가 있다. 누구든지 이상은 원대하고 고상하지만 실제로 그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은 멀고 그보다 열악한 현실은 사람들에게 항상 타협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처럼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소위 강대국이란 나라들은 한결같이 철저한 경제원칙에 입각한 합리주의정책을 고수해왔던 나라들이다. 모름지기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상을 고수하기 보다는 현실에 더욱 잘 적응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불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우주밖에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절대불변의 진리를 소유한 이상 이를 두고 현실과 타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앙의 지조란 바로 이 믿음, 진리를 지키려는 순일(純一)한 정신이요, 고귀한 투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없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타락이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소신은 간곳없이 그때그때 시류에 적응 잘하는 약빠른 사람이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진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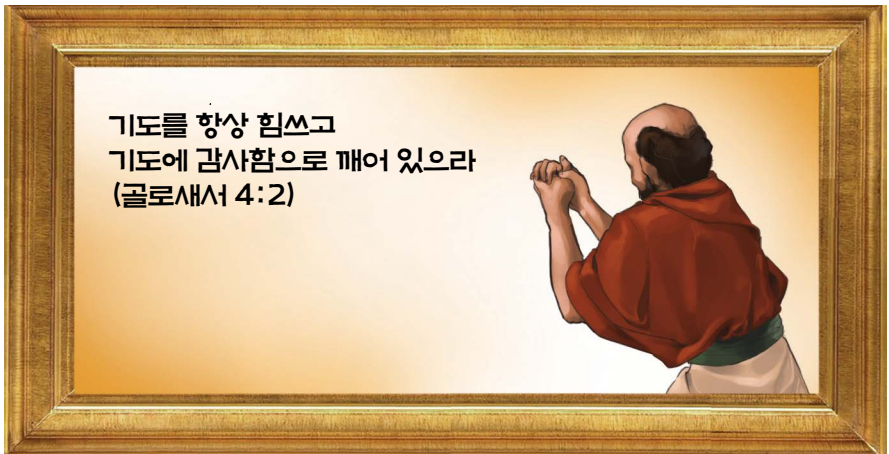
기 때문이다. 신앙의 지조를 지닌 사람은 세상이 변하고 시류가 달라져도 눈 하나 깜짝 안한다. 온 세상이 뒤집어져 흔들릴 지라도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있어 우리는 예수의 반석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 문화는 시류에 따라 변한다. 학문도, 가치도, 인심도 변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개치 말아야 한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 바 되고 하나님 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6:4~6). 우리는 주님을 위해 미련하고 어리석음도 있어야 한다. 너무 약삭빠른 것은 종종 신앙을 저해한다. 신앙 때문에 지조를 지키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야 만다는 믿음! 이 믿음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다. 나의 이상, 가치, 자랑 따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길 간절히 소원한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별빛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집회 때 장성 기도원에 가서 저녁 예배 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무척 많다. 이보다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 정말 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많다. 왜 그럴까? 별이 시골을 좋아해서 다 이사했나? 아니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건만 인공적인 빛이 너무 강해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빌딩에서 나오는 불빛, 가로등 이런 것들이 너무 밝아 별빛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2천 년 전의 인물로 그친 것일까? 아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건만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적한 곳에 가면 별이 빛나듯,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보인다.

욕망과 욕심, 질투와 거짓, 탐심 등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고로 독버섯이 아름답듯, 별빛보다 인공 빛이 휘황찬란하다. 그래서 현혹되기 쉽다. 그러나 아는가? 그런 빛들이 우리 눈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그 빛은 정신마저 혼미케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은은하다. 그 빛은 치료의 광선이며, 평화의 광선이며, 구원의 빛이다. 그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곳에 이를 수 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인공적인 빛을 끄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별빛이 내릴 것이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 그 분이 빛나게 하자. 그 빛으로 살자.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예수중심편집실



:: 삶이 있는 이야기 ::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1972년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공사하던 중 갑자기 땅이 무너지면서 땅굴 속에 숨어살던 김태웅 목사님과 36명의 성도들이 발각되었다. 성도들은 1953년 북한의 공산당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에 땅굴로 들어가 19년 동안이나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비롯한 성도 전원이 순교했고, 공사용 스티머에 깔려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그 중에는 출애굽 이후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환희에 차서 찬양한 이도 있지만, 반면 깊은 고난 가운데서 금보다도 귀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입증한 이들도 있다. 읊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는 고통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찬송을 올려드렸고, 다윗은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고난으로 점철된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다. 우리를 비롯하여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사43:21).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또 복음을 전하며 겪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능히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케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하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잘되고 순탄할 때 뿐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만을 받기에 마땅하신 거룩하신 이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시103:1).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어린 아이와 같아야

결혼 후 10여 년 간 세 아이를 키워왔다. 사역자의 아내로서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이 녹록치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本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나는 종종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3)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모호하게 느껴졌다.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했다. 하지만 이미 커버린 나에게 어떻게 해야 늘 ‘어린아이 같이’ 살 수 있는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다. 게다가 ‘결단코’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해 답을 주셨다. 엄마가 부르면 아이들은 쏘르르 달려온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잘 논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행동을 할 땐 엄마를 쏙 쳐다보고는 허락해달라는 눈빛을 보낸다.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굴러도 보지만 혹여나 엄마가 두고 갈까봐 눈물을 머금고 터덜터덜 따라온다. 엄마가 웃으면 아이들은 행복하고 엄마가 슬프면 아이들도 슬프

다. 엄마는 아이들에겐 곧 세상의 전부이다. 아이들은 엄마의 끊임없는 관여 속에 살면서 행복과 안정을 느낀다. 아직 자아(自我)가 형성되기 전 아이에게는 엄마가 자기 자신인 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여’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말씀, 예배, 기도, 꿈과 이상을 통해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눈을 맞추며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곧 세상의 전부이길 바라시는 것이다. 그 바람 자체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제일 먼저 방문을 잠근다고 한다. “Leave me alone.” “날 좀 혼자 내버려두라”는 메시지이다. 긴 인생길에서 혹시나 내가 사춘기 소녀마냥 하나님의 관여를 귀찮게 느끼게 될까 두렵다.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같기를 기도한다. 어떤 상황에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과 같이... 이호은 사모 hoeun20@hotmail.com

목적이 이끄는 삶

작년에 저는 스스로 1년의 안식년을 주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하와이에 가서 어학연수를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긴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퇴사를 할 때 다시 취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회사에서 원하는 일하기 좋은 연차였고, 광고업계 특성상 1년 정도 쉬었다는 것이 별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봄부터 서서히 구직하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좋은 자리를 많이 추천받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의외의 변수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 너무 심란했달까요. 1년 3개월간의 휴식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다시 경쟁하고 야근하고 자신을 소모해야하는 직장 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꽤나 괴로웠습니다. 급기야는 굳이 광고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찾아왔고, 적게 벌어도 되니 적게 일할 수 있는 편한 일이 없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합격하고도 입사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저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 괴로웠을 때, 수요일에 설교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예배시간에 2016년도 추계산상집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되짚어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지요.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살아야 하는 이유? 주님을 위해서.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인 거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처럼 남에게 베풀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제가 괴로웠던 것은 제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닌 나에게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만 건사할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일하고 싶었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따라오는 여러 문제로부터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중심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기니 그런 고민은 결국에는 부차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광고대행사의 팀장님과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편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 면접, 임원 면접, 최종 면접을 거쳐 지금은 출근한 지 3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했던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팀장님도, 팀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 인생의 중심이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운 것이 있나요? 삶의 중심을 나에서 주님으로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해결이 될지 모릅니다.

신은혜 자매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어떤 목사님께서 탄광촌의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갭도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감독이 나서며 항변하듯 따졌습니다. “예끼 여보쇼,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요!” 목사님이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이 갭도 밖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야 간단합니다. 승강기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감독님은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승강기를 설치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네요.”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이 승강기를 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간편하고 쉽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고 베풀어주신 그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라’(신5:15),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신7:18),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신8:2),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신8:18),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신9:7), ‘너를 속하심을 기억하라’(신15:15),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신16:3),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옛날을 기억하라’(신32:7),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느4:14),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사46:9).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 은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행한 것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전15:10)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받아누리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넉넉히 베풀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받은 은혜에 더욱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허무주의가 되지 말고
인생의 꽃대를 세워라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 팔빙수의 계절

더운 여름철, 시원한 팔빙수 한 그릇이면 가슴속 안의 더위까지도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원한 팔빙수가 과연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째로 팔은 적소두라고 하는데, 독성이 없으며 달고, 약간 성질이 차가우며, 심장, 소장, 비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효능은 몸의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하여 수분을 잘 배출시켜줍니다.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너무 마른 사람이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더운 여름철 가슴의 답답함을 개선시켜주고, 몸의 수분 순환을 도와 소변을 잘보고 부기를 내려줍니다. 두 번째로 우유는 영양이 풍부하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및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성질은 달고, 약간 서늘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심장, 폐, 위장으로 들어가며, 기운을 보충하고 혈액을 공급하며, 몸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차가운 사람은 소화에 무리가 되지 않게 적게 먹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수박은 달고 서늘한 성질로 독성이 없습니다. 심장, 위장, 방광으로 들어간다고 하며, 열을 낮추고 더위를 해소시켜주며, 답답함을 줄여주고 갈증을 줄여주며, 소변을 시원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수분함량이 높고, 단맛이 강하며, 항산화기능을 가진 라이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박의 껍질역시도 이뇨작용이 강하여 부종이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미, 보리, 콩, 율무, 찹쌀, 깨, 들깨가 들어간 미숫가루와 떡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열음, 팔, 우유, 수박의 가슴속까지 시원한 효능을 보조하며 더운 여름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어 더위가 가시더라도 체력이 지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대비 작용을 이용

한 배합을 치료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즉 몸의 열을 내려주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피로해지게 되는데(추운데 오래 있으면 쉽게 피곤해지듯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면 몸의 열은 내려가되 에너지는 떨어지지 않기에 오히려 피로가 가시게 되는 효능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팔빙수는 더운 여름이라는 상황과 그로 인해 쉽게 지칠 수 있는 상황을 같이 염두에 둔 음식입니다. 더위도 가시고 몸도 기운 나는, 이 두 가지의 효능을 기가 막히게 구현한 여름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팔빙수를 먹고 소변을 봄으로써 체내의 수분이 배출되면서 몸의 열이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니 다른 찬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체내의 시원함을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